

豐 鎮

1988

全州文化院

(文公部 登録番号 第卅-962号 登録日 1981. 8. 10 郵便番号 560-020 隔月発行)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靈嶺

49

1988年 12月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래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44절〉

* 編 · 輯 · 後 · 記

□...올해로 2회째 맞은 지난 11월 1일의 詩人의 날. 藝鄉이라고 불리어 온 전북지방에서 詩낭송회가 한곳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노령에서는 그동안 계획해 온바 있는 우리 옛 풍습찾기 시리즈를 중단하고 “송년특집 51人 文學特選”을 마련했다.

각고의 진통을 겪는 창작을 선보이는 이번의 노령문학특선은 그동안 노령을 위해 창작품을 보내주신 문학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계획이었다. 우리 고장 출신 문학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호로 창간 10주년의 해를 보낸다. 지난 통권 41호(87년 5월호)를 발행하면서 1천여 필자를 초청하는 자축연을 가지려고 했으나 통권 50호를 맞이하는 89년의 첫호를 계기로 준비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 조급한 마음을 억제했다.

張明洙교수의 창간 의지가 굴절없이 계속되기를 바랄뿐이다.

〈송영상〉

蘆 嶺 第49號 1988年 12月

1988年 11月 5日 印刷 / 1988年 12月10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58의 4 ☎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84-0030 · 84-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蘆

嶺

1988年 12月 第49號 目 次

- 8 卷頭隨想 / 인재의 귀착지 張明洙
10 送年辭 / 반성과 모색의 용해물 金光鎭

88 蘆嶺文學 送年特輯 51人選

* 童 詩

- 12 청과물 시장에서 윤갑철
14 비오는 날 윤이현
16 산에 오르면 전이곤
18 안개꽃 허호석

* 詩

- 20 콩나물 콩에게 金南坤
22 관 심(1) 金東洙
24 편 지 金民星
26 포장마차에서(2) 朴萬瑾
28 古群山島 朴順浩
30 이 가을에 朴芝蓮
32 山 이야기(24) 朴亨輔
34 들 국 화 소재호
36 영원한 반려자 李基班
38 가을 저녁 李東熙
40 辛夕汀 · I · 남새밭 李炳勳
42 겨울 이야기 장화자
44 빛되어 소금되어 鄭舜亮
46 鳥竹의 노래 鄭烈
48 무등산의 단풍 趙炳喜
50 설악에 올라 朱奉求
52 농 부 陳東奎
54 낮은 산 崔炯
56 안 파 崔宗奎
58 저 울음소리는 韓成洙
60 가을 엽서 許素羅

62	오늘은.....	黃吉顯
64	복 서 풍.....	黃榮順

* 隨 筆

66	직업과 궁지	高光羽
69	청문회 유감	孔淑子
72	봉숭아 가지	국명자
75	까 치 밥	金景喜
78	직행버스를 타고	김순영
81	서울 나들이	김은숙
85	白 糲	金貞姬
89	운전을 배우고 나니	金 鶴
92	개 소 리	金煥得
95	내 幼年의 가을은	朴玉枝
98	멋	李昌玉
101	文人과 匠人정신	임동조
104	영화 감상	全淑子
107	아내의 보람	田善子
111	술 이야기	丁德龍
114	中華山洞 사람들	鄭周煥
117	藝鄉의 등산에 눈부신 햇살이	韓大錫

* 童 話

121	징 소 리.....	김용재
125	양 호랑이 선생님.....	임복근

* 공 트 · 小 說 · 評 論 · 戲 曲

129	아버님, 저 여기 왔읍니다.....	曹圭華
132	가을 노래	禹漢鎔
137	父 情	柳基洙
144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인간	張世珍
149	人生살이	文致相

176	李鎬培칼럼 / 施惠文化와 蘆嶺	李鎬培
178	醫 境 / '건강상식' 들	柳承國
181	우리말 우리글 / 샘 물	崔昌烈
180	좋은 글귀풀이 / 初唐四傑	柳豐淵
182	生活과 素敎⑧ / 기도하며 사는 생활	金榮錫
184	全州 風物記⑨ / 全州 川 邊	宋榮相
188	*續「나의 文學 80年」⑤ / 海剛日記 抄	曹圭華
193	畫家가 가본 내 고향 山河 / 裴 赤 山	李方雨
194	편 집 후 기	

● 金 南 坤

콩나물콩에게

全州땅
타작 마당에
납작 깔릴 때
너는 빛난다
그 아픔으로

다시 눈뜨기를 원할 때
너는 더욱 빛난다
그러다가 不妊으로 속이 타
한 목숨 물벼락을 맞을 때
너는 더더욱 빛난다.